

여성 영화로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없는 세상을 꿈꾸는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제10회 광주여성영화제가 5~10일 6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극장3, 광주독립영화관 GIFT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를 슬로건으로 여성영화, 다양성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고 여성 감독들을 지원,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해 왔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춤추며 가자!'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여성이 모두와 춤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영화제는 장편 24편, 단편 26편 총 50편의 영화로 시민들을 만난다. 작품은 여성 감독이 제작했거나 여성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첫날 오후 7시 ACC 극장2에서 상영되는 개막작은 박소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다. 목포역에서 서울역을 지나 배를타고 기차로 이동하며 노래·춤으로 평화를 외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상영 후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은 총 9회 예정돼 있으며, '프랑스 여자'(7일)의 김희정 감독,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9일)의 김소영 감독, '해일 앞에서'(10일)의 전성연 감독 등 12명의 감독이 관객을 만난다.

다양한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리는 '다시 보고픈 여성 영화 특별전'은 지난 10년 동안 상영된 작품 300여편 중 관객 설문조사로 선정된

제10회 광주여성영화제 5~10일 문화전당 등서 박소현 감독 '사막을...' 등 장단편 50편 상영 12명 감독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가져 다시 보고픈 영화·지역여성감독 특별전 눈길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해일 앞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을 앙코르 상영하는 자리다. 먼저 제1회 여성영화제 폐막작 '어떤 개인 날'(8일)이 토크 콘서트 '10년 만에 우리 다시 만나'와 함께 관객을 만난다. 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페

미니스트 정당 'F!'를 창당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페미니스트 창당 도전기'(8일)도 상영된다. 지난해 영화 '신기록'으로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감독 허지은을 중심

으로 펼쳐지는 '지역여성감독 특별전'도 8일 ACC 극장3에서 열린다. 이날은 허 감독의 초기작 '소식'부터 '신기록', '해미를 찾아서' 등 5편의 단편영화를 스크린에 올리며, '광주, 여성, 감독 허지은을 말하다'를 주제로 변영주 감독과의 토크 시간도 마련된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여성캐릭터 다시보기 특별전'도 열려 '한국영화 속 쿼어여성'을 주제로 김수형 감독의 '금육'(9일)을 만나볼 수 있다.

기획전,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볼거리다.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 등 3명의 게스트와 함께 여성대상범죄를 중심으로 인식의 변화, 저항의 몸짓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아무도, 그러나 모두'가 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여성영화제 1~10회 각각의 캐치프레이즈와 그에 담긴 이야기들을 정리한 '함께 추는 춤', 시민들의 참여로 혐오 표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등 기획전도 열린다.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년'을 주제로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스태프, 자원활동가, 관객, 여성영화인들을 초대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을 고민하는 '광주여성영화제의 밤'도 8일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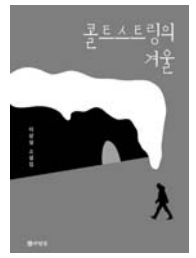
한편 영화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5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 10년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어쩌다 10년'을 폐막작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상영작 및 프로그램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세월호·해고노동자...우리가 사회 민감한 문제 그려

완도 출신 이상실 작가

소설집 '콜트스트링의 겨울' 펴내



"글을 쓰기 위해 또한 쓰면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서 함께하기도 했고 4·3유족지를 답사했으며 기층 민중들의 삶의 현장도 취재했다. 매체를 통해 배설된 정치인들의 부정한 행태에 분노하면서 썼다. 작품마다 우리 사회가 흘린 편린들을 담았다."

완도 생일도 출신의 이상실 작가가 소설집 '콜트스트링의 겨울'을 펴냈다.

작품집은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과 위안을 담고 있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수구와 진보가 대립하는 정치 상황, 해고노동자의 복지 투쟁, 남북 가족의 누명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를 거침없이 그렸다. 작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삶을 주시한다.

'버킷리스트-팔문적'은 세월호 참사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으며, 표제작 '콜트스트링의 겨울'은 악기 제조회사

의 부당 해고에 맞선 복직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또한 '폴카데미의 생활기록부'는 시민단체 회장 후보자 들의 무작위로 수료해야 하는 '폴카데미' 교육을 배경으로 역사의식과 사회상을 형상화했다.

정어현 작가는 추천사에서 "이상실 작가는 시대와 광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여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실은 각각의 삶과 소우주를 품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며 "콜트스트링"은 아직 겨울이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봄이 오고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 함께 맞자고 소설 속 인물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싶어진다"고 평했다.

한편 이 작가는 2005년 '문학과의식'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작품집 '월운인 사람들'과 장편 '미행의 그늘'을 펴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반도네온 김국주밴드의 공연 모습.

반도네온으로 듣는 푸가·탱고 음악

월요콘서트 올 마지막 공연 김국주 밴드...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올해 마지막 공연이 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반도네온 김국주밴드'가 선보이는 '찬란한 푸가 그리고 반도네온'으로 마련됐다.

개량된 아코디언의 일종이자 탱고 음악에 주로 활용되는 악기 '반도네온' 연주를 기반으로 바로크 시대 푸가음악,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음악 등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텔레만의 '비올라 협주곡'으로 막을 올리고, 바흐의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깨어있으라 그 음성이 우리를 부른다'를 연주한다. 피아졸라의 '푸가타', '신비한 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계 중 봄'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날은 김국주(반도네온), 시나(바이올린), 다미(콘트라베이스), 초연(피아노)이 출연한다.

입장료 1만원. (선착순 100명)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교류 플랫폼 발돋움

'아시아문화주간' 성료...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활성화 등 합의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아문화주간'을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세안 문화협력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이는 아시아의 연대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와도 궤를 같이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4주년을 기념해 ACC에서 진행된 2019 아시아문화주간 행사가 최근 성료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ACC를 한-아세안 문화교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문화부장관들에게 관심을 요청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 장

관들은 아세안 국가의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국제개발협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CC-주한아시아대사관 협력회의에 참석한 대사관의 문화담당관들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들이 ACC의 역할에 주목한 것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논의했다. ACC 담당자들과 대사관의 문화담당관들은 아시아문화주간 운영, 아시아국가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ODA) 사업 개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활성화 등 ACC 주요 국제협력사업의 추진도

대사관과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유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ACC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세안 10개국과 운영해왔던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와 아시아무용위원회에서도 ACC 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과 2020년 11월에 캄보디아에서 개최예정인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시아전통음악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ACC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

시아-유럽창의혁신도시시장연대(CICA) 시장회의'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15개 도시 시장이 참여해 '창의 산업으로 키우는 문화도시의 경쟁력'을 함께 논의했다.

'아시아 작가의 눈·지역, 치유, 연대'를 주제로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ACC가 마련한 아시아문화포럼에서는 오기나와, 대안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생명과 연대 그리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을 극단 오단이 공연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소개됐다.

한편 ACC가 아시아문화를 소재로 준비한 20여개의 공연, 전시, 체험행사도 펼쳐졌다. 광주, 아세안, 중앙아, 인도, 문화유산, 공예, 문화상품, 한류, 현대무용, 스토리텔링, 관광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운~ 부자되세요!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OK 당 구 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 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현대 목 공 예 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진 주 공 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상품만들기
☎ 010-3906-1718

완 도 전 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 지 공 인 중 개 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 담 철 학 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 주 갤 러 리 경 매 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출연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그 집 고 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 학 철 학 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 강 창 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 수 나 무 용 봉 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 로 버 부 동 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용봉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